

민주당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당론으로 채택할까

강기정 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공식 요청, 민주당의 후속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과 박군택·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병수 광산구

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의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석하기로 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전남에서도 별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무안통합공항 건설 계획이 담긴 '무안통합공항 디오라마(축소 모형도)'를 통해 통합 신공항과 신도시 구축 비전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 1조원 규모 지원 적절성,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 3개

●군공항이전 광주 국회의원 간담회

姜시장 공식 요청에 민형배 "특위 구성 필요...당론 채택 고민" 안도걸 "무안공항 KTX 개통 맞춰 광주 민간공항 먼저 보내야" 양부남 "추석 이후 전남 지자체 입장 수렴 후속 작업도 총력"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강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입법권의 문제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와 이에 더해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으로도 이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1조원 규모의 지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주, 소음, 정신적 보상 등은 법에 의해 지원되고 광주시의 1조원대 지원은 법적 보상은 별도의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확정 전 민간공항 이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공동발표한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이전 문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민형배 국회의원은 "무안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당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당론으로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회의원들은 사업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에 의견을 드러냈으나 이전 결정이 더 이상 지연되는 안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2면에 계속 /박선강 기자



'판소리, 모두의 울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후 첫 주말인 8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한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2월1일까지 86일 간 비엔날레 전시관과 양림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김애리 기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86일 대장정 돌입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 모두의 울림
PANSORI 판소리
24.9.7. - 24.12.1.
15th Gwangju Biennale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8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14·15면
지난 6일 오후 6시 북구 중외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30개 국가 72명 작가 참여...31개 파빌리온도 '눈길'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및 파빌리온 참여작가 등 5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개막 행사는 개막 선언, 환영사, 축사, 니콜라 부리오 감독의 전시 개요 설명·참여작가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개막 선언을 통해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주제와 전시 모든 면에서 세계 비엔날레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본전시 외에도 31개 파빌리온 전시를 통해 국제 미술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지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의 큰

스트이기도 하다. 내가 사는 집에서 우리 모두가 사는 우주까지 모든 공간을 담은 이번 전시에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함께 해줄 바란다"며 "광주비엔날레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우리 모두다. 86일 간 그 대장정의 시작을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을 돕는 데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립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미술계의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최명진 기자



김도영, '역대 3번째' 대기록...KIA, 우승 매직넘버 '6'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이 KBO 역사에 또 하나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관련기사 16면
김도영은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홈경기에서 스코어 2-2인 8회 1사 2루 상황에서 1타점 3루타를 때렸다. 앞서 0-1로 뒤진 3회 1타점 내야 땅볼에 이은 시즌 100번째 타점이다. 이로써 김도영은 한 시즌 '3할-30홈런-100타점-100득점-30도루' 대기록에 2000년 박재홍(현대)과 2015년 에릭 테임즈(NC)에 이어 KBO 리그 역대 3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은 이날 경기전까지 타율 0.343, 35홈런, 38도루, 127득점, 98타점을 기

3할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

록 중이었다. 첫 타석인 1회말 내야안타를 기록한 김도영은 0-1로 뒤진 3회말 2번째 타석 무사 1,3루에서 내야 땅볼로 박찬호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스코어 2-2인 8회말에도 1타점 역전 3루타로 결승타를 날리며 이날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한 김도영의 맹활약으로 KIA는 5-2로 승리하며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를 6으로 줄였다.
올 시즌 KBO 최연소·최소경기 '30-30' 등 역대급 기록을 써온 김도영은 남은 12경기에서 5홈런과 2도루를 추가하면 국내 선수로는 최초로 '40-40' 고지에 오르게 된다. /주홍철 기자·사진=KIA타이거즈 제공

제16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최취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은행

접수마감
9.30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일회 접수 인정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용양수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 (장정별요)
출품수 4점 이내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4년 10월 7일(월)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강당
심사결과발표 2024년 10월 10일(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www.kjdaily.com
개전 및 시상일시 2024년 11월 6일(수) 오후 2시
시상장소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회관 4층 다목적실(예정)

시상 내역
1.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2.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전라남도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3.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 부상 50만원
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 사항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작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은 5일 이내에 선정,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위소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어 함.
· 초대작가 16"×20" 작품 e-mail 제출 (jk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요함